

## “광야에서도 복은 시작된다”

- \* **신앙고백** : 사도신경으로 / 다 같이
- \* **찬 송** : 자유롭게 / 다 같이
- \* **합심기도** : 오늘의 구역예배에 성령님이 함께 해 주시고, 오늘 모인 장소의 가정을 축복해 주소서.
- \* **대표기도** : 지난 주에 예배드린 가정의 가족 중에서 한 분
- \* **성경봉독** : 여호수아 15장 1절

### ▶ A. 구역공과 ◀

1. 지난 한 주간동안 살면서 가장 감사하게 느꼈던 일이나, 주일영광예배 때 나눈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면서 생긴 에피소드가 있다면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여호와께 ( )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시107:1)
3. 하나님께 축복받는 삶은 어떤 것인가요?
  - ① 명예로운 삶
  - ② 사람들에게서 당당한 삶
  - ③ 권력을 휘두르는 삶
  - ④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
4.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 ) 그 끝까지 네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 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수 17:17~18)

### ▶ B. 공동체 성경읽기 ◀

**월요일(왕상 4~6장)**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이 함께 건축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철폐되고,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될 것을 예표 합니다. 이방인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의 주역을 감당하게 될 것을 예시해 줍니다.



**화요일(왕상 7장)** 성전의 놋기구들을 제작한 히람은 본래 납달리 지파의 어머니와 두루 사람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 놋 세공과 놋 조각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를 두로 왕 히람이 성전기구 제작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파송한 것은, 성전뿐만 아니라 기구까지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왕상 8장)** 성전의 낙성식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안치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목요일(왕상 9~10장)** 솔로몬이 성전뿐 아니라 자신의 궁궐도 완공한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재차 임하셔서 말씀이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다윗과 하신 언약을 지켜 그의 왕위를 영원하게 하시지만, 만일 그와 그의 자손이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뿐 아니라 성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던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활용하여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하신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탁월함은 물론이거니와 대내외적인 정치력에서도 최고의 절정에 이르렀음을 스바 여왕의 방문 일화를 통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임한 부와 명예, 그리고 이로 인한 타락의 조짐 등이 나타납니다.

**금요일(왕상 11~12장)** 이제까지의 화려했던 장면들에서 급반전하여 솔로몬의 타락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그의 비참한 말로를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계명을 거슬러 이방 여인과 통혼하고, 가증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그에게서 빼앗아 그의 심복에게 주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선언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징조로 두 사람이 솔로몬을 대적하여 일어난 사실을 보여줍니다.



**토요일(왕상 13~14장)** 여로보암이 벰엘 단에서 분향함으로써 그의 종교정책을 가시화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가 나타나 벰엘 제단의 파멸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실수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와 표적을 경험했음에도 여전히 우상숭배에서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 첫 왕이 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행적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사악했음을 보여줍니다.

**주 일(왕상 15~16장)** 남유다 제2대 왕인 아비얌의 행적과 유다에 임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바아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북이스라엘에 우상숭배 정책을 단행했던 여로보암 가문을 멸절시키고 북이스라엘의 제3대 왕이 됩니다. 바아사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최악 가운데 거하다가 하나님의 도구가 된 시므리에 의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바아사 왕조의 엘라를 마지막으로 시므리 왕조가 새롭게 시작되지만, 7일 천하로 끝을 맺습니다. 시므리를 타도하고 새로운 왕조를 세운 오므리가 이전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오므리의 뒤를 이어 아합이 북이스라엘의 7대 왕으로 올라서서 22년간 통치합니다.



### \* 합심기도 :

1. 광야 같은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며 감사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2. 작은 타협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소서.
3. 불평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개척하고 도전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 찬송 및 헌금 : 찬송가 456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구역헌금을 드리겠습니다.

\* 봉헌기도 및 주기도문 : 드린 예물을 위해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구역헌금은 해외선교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군산삼학교회 교역자실(책임출제자: 박윤석 전도사)